

『버찌가 익을 무렵』 소론*

-리모주 시대의 도손을 중심으로-

임 성 규**

(e-mail: pkyunok1@hanmail.net)

<목 차>

1. 들어가면서
2. 스테키치의 청춘
3. 스테키치와 크리스티교
4. 리모주 감회
5. 나가며

Key word: 『버찌가 익을 무렵』(『The Time When Cherries Are Ripening』), 스테키치(sutekichi), 크리스티교(Christianity), 리모주(Limoges), 『신생』(new birth), 신(God)

1. 들어가며

시마자키 도손의 『버찌가 익을 무렵』은 다이쇼 8년, 어두운 시대의 우여곡절 속에서 그려진 메이지 20년대에 대한 회상이다. 다이쇼 2년 『문장세계』 1월호에는 나카무라 세이초, 마사무네 하쿠초, 오가와 미메이, 도쿠다 슈세이, 모리타 쇼헤이, 스즈키 미에키치, 다야마 가타이 등 자연주의 작가가 이 잡지를 장식하고 있었다. 물론 도손도 아사쿠사 신가타마치에 살며 『버찌가 익을 무렵』을 연재하기 시작한다. 『버찌가 익을 무렵』을 쓰는 도손은 이미 조카와 정사를 경험했고, 그 사건을 중심으로 한 작품 『신생』을 쓰고 있다.

『버찌가 익을 무렵』은 다이쇼 2년 4월, 도손의 <신생 사건>이라고 불리는 프랑스 여행에 의해 제 2장으로 막을 내린다. 다이쇼 3년 5월부터 『문장세계』

* 이 논문은 2017년도 백석대학교 대학연구비에 의하여 수행된 것임.

** 백석대학교 어문학부 일본어 전공, 부교수, 근·현대문학

에 단기 연재되어 다이쇼 7년 6월 완성된다. 그 중 제 5장까지는 파리의 객사에서, 파리에 도착해서 원고를 보낼 예정이었는데, 다이쇼 3년 1월부터 『버찌가 익을 무렵』으로 제목을 바꾸어 처음부터 다시 쓰고, 제 1차 세계 대전을 조우, 원고 중 제 3장은 원고가 분실되어 일본에 도착하지 않아 다시 원고를 써 보내고, 다이쇼 4년 2월까지 시간이 걸려서 중단하고 귀국한다. 제 6장 이하는 다이쇼 6년 2월부터 연재하기 시작한다. 그 후 귀국하여 2년 정도 다시 <신생 사건> 재연의 시기에 있게 되고, 전장 (1장~5장)과 후장 (6장 이후)과의 미묘한 분위기 변화가 주목을 끈다.

『버찌가 익을 무렵』은 메이지 23년 7월부터 메이지 26년 2월까지 “우리들 젊은 청년 시대를 쓴 것이고, 『봄』에 나오는 같은 청년 남녀 군상은 이 작품 속에서도 다뤄지고 있다는 의미에서 『봄』의 서곡이라고도 볼 수 있다”¹⁾ (『버찌가 익을 무렵』 후예)는 것이다. 도손이 말하듯이 『버찌가 익을 무렵』은 성(性)의 발아기에 있는 젊은 만큼 고뇌하는 청년들을 “젊은 날 행복의 증거”(8)의 상징으로써 취재하고, 미래에 대해 말로는 표현할 수 없는 공포를 느끼면서 누구나 기다리고 있는 새로운 세계, 그 멀고도 가까운듯한, 학수고대하면서 한 걸음 내딛으려 하는, 그러한 밝은 군상을 역력히 그리고 있다.

젊은 청년 시절을 그린 것이지만, 가메이 카츠이치로는 “중년기의 위기에 처한 사람의 붓이다. (중략) 오히려 『신생』 안에서 고찰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되는 부분도 있다”²⁾라고 한다. 와다 킨고는 “<신생>사건을 가슴 속에 숨기고 있던 도손이 프랑스에서 <우리들 젊은 청년기>를 떠올리며 써 내려간 전반은, 작풍으로써는 『식후』와 『미풍』 흐름에 속하는 것으로 비교적 <성(性)>문제가 강하게 의식되어 있다. 반면 후반은 <여행>이라는 사상으로 유지되고 있다”라고 말하며, “『신생』에 이르는 자기 문제의 출발점을 도손은 이 『버찌가 익을 무렵』 안에서” 발견한 것으로, 바로 “『신생』의 서곡이라고도 볼 수 있는 것이다”³⁾라고 말한다. 분명히 이 작품은 살면서 지옥을 체험한 도손이 프랑스를 여행하면서 구교(旧敎)에 대한 정조에 빠져, 젊었을 때의 자신을 돌아보고 (아버지, 가츠코, 아오키 등에 대한 회상) 신생을 일으키기 위한 전주곡으로 읽어야 한다. 게다가 『봄』에서는 볼 수 없는 밝음과, 청춘기를 이미 지나 온

1) 「정본판 도손문고」

2) 가메이 카츠이치로(1953) 『島崎藤村論』 신조사, p.110

3) 와다 킨고(1966) 『島崎藤村』 명치서점, pp.73~74

도손이 청춘의 본질을 객관적으로 냉정하게 바라보는 모습이 엿보인다. 청년들의 성(性) 발아와 연애의 자각, 미래에 대한 불안과 주위의 물이해, 크리스티교 신앙의 수용과 이탈, 우정 등 모든 청년들이 고수하고 있는 문제를 도손 자신의 그것으로 비추어 바라보는 자전적 소설이며, 교양 소설이라고 볼 수 있다. 도손은 『버찌가 익을 무렵』의 4·5장을 리모주의 객사에서 썼다. 산·티첸느 사원을 방문하여 종교적 신념에 대한 확신에 접하고 있을 때도 있었다. “돌기둥 옆에 묵묵히 걸터앉아서 마치 잠시의 시간이라도 『영원』이라는 것과 마주하고 있는 듯한 여행자와 같은 마음으로 돌아갔다”(『신생』)라고 말하듯이, 그는 영원과 마주 함으로써 신의 편안함을 알게 되고 종교적 신념에 대한 확신이 이루어진 것이다. 이 리모주에서의 종교적 체험은 『버찌가 익을 무렵』의 크리스티교 신앙과 대조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본 논문에서는 도손의 프랑스의 여행 체험을 고려하고 나서 『버찌가 익을 무렵』의 청춘과 크리스티교라는 것을 생각해 보기로 하자.

2. 스테키치의 청춘

미션 스쿨에서 공부하고, 하이컬러 복장으로 학교생활을 즐기고 있던 기시모토 스테키치는, 성(性)에 눈뜬 무렵부터 학업에도 교우에도 흥미를 잃고 문장으로 청춘의 고뇌를 풀어내려고 한다.

기시모토가 보기에 5살 정도나 연상인 젊은 부인과 그와의 친밀함은 약 1년 정도 계속되었다. 그녀가 던지는 언어나 동작은 웬지 기시모토의 마음을 자극했다. 옛날 일본의 관습에 없는 청춘남녀의 교제라는 것을 가르쳐 준 것도 그녀였다.

청년들의 학창시절의 정경이다. 자유분방한 청년들은 소녀들이 모이는 문학회에, 집회에, 교회 장로의 가정에 출입하며 자유연애에 빠지거나 자신의 이상을 마음껏 그려 보기도 하는 서양 에키조티시즘의 정서를 자아낸다. 물론 스테키치도 “땀장이의 멜대”라 불릴 만큼 주제넘고 건방졌다. 그 가운데 다섯이나 연상인 시게코와의 교제는, 일본 관습으로는 지금까지 없었던 청춘 남녀의 교

제라는 것을 기시모토에게 가르쳐 주었다. 그리고 그녀에게 받은 편지가 바로 여자에게 받은 첫 편지였다. 그것들의 온정, 친절은 완고한 소년이었던 스테키치 마음을 따뜻하게 해 주는 누나 같은 것이었다. 스테키치는 친구와 함께 “청년회다 침묵회다 크리스마스다 뭐다 하며 정신없이 들 떠있었던”(1) 것도, 매일 아침 예배에도, 문학회에도, 화려한 경쟁 연설에까지 열중하고 있다. 도가와 슈코츠에 따르면, 이때의 도손의 모습은 “나는 새도 떨어뜨릴 기세” (『자화상』)이었다. 이런 분위기 속에서 도손은 메이지 21년 6월에 세례를 받는다. 세례식을 받고 목사가 신앙 고백을 읽는 것을 듣고 신앙을 확인한다. “아사미 선생님 앞에서 신도로서 지켜야 할 조목을 들었을” 때의 일이 꿈처럼 스테키치의 가슴에 떠올랐다.

그러나 시게코와의 교제로 인해 교내에 염분이 퍼진다. 학우의 입에서 그것을 알게 되었을 때 기시모토는 시게코를 더 이상 가까이하지 않으려고 결심했다. 메이지 20년대 개화 시대에, 그 중에서 크리스티교 생활에 익숙하지 않은 스테키치에게 그 소문은 심한 자학과 회한을 일으킨다. 그녀와의 관계는 “묻어 버리고 싶은 과거의 기억”이 되어 갔다. 아사미 선생님이 주도한 예배에 참석했지만, 모든 것이 “공허하게 되어 버렸다. 그의 정신을 고취하고, 화려하게 만들었다고 여겨지는 것은 이미 환상처럼 사라졌다”(1)는 것이다. 그리고 그것은 이윽고 침묵과 우울을 낳게 된다. 시게코와의 일에 대해서는 “지나간 날의 과감함을 깊이 생각하지 않을 수 없었”(3) 거나 “지나간 날의 과감함 따분함을 절실히 알게 되거나” 할 정도였다. “묻어 버리고 싶은 과거의 기억”이란 세누마 시게키가 말하는 “과리에서 『버찌가 익을 무렵』을 힘껏 자신에게 투영시켜, 연상의 여자와의 정사에 조카와의 과오를 이입해서, 비밀스러운 고백과 현재의 심경을 강하게 살리려 하는”(4) 증거라고 결론을 내릴 만도 하다.

『버찌가 익을 무렵』의 주요 인물을 알아보면 다음과 같다.

『버찌』(초고)

原 種夫

岡田 文太

『버찌가 익을 무렵』

岡 幸吉

4) 세누마 시게키(1959) 『평전島崎藤村』 실업지일본사, pp.224~228

小林 文太

初版 単行本

기시모토 스테키치

다나베 히로시

처음 출간인 『버찌가 익을 무렵』과 개고 『버찌가 익을 무렵』 1, 2장을 비교해 보면 처음 출간 1, 2장은 개고 2장에 해당하고, 개고 1장은 새로이 추가 기재된 것이다. “묻어 버리고 싶은 과거의 기억”으로써 시게코가 등장하는 것이다. 처음 나온 『버찌가 익을 무렵』이

최근에 붓을 잡기 시작하여 초고가 책상 위에 놓여 있었다. 그것은 자전의 일부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었다. 그의 소년시대에서 청춘시대에 들어가려고 할 무렵의 것이었다. 필경 자신에게 있어서는 이것이 마지막 집필일지도 모른다는, 그런 마음이 흐트러진 그의 마음속을 지배하는 것 같았다.

라고 말하듯이, 도손은 프랑스를 여행하면서, 그때까지의 자신의 문학적 생애에 결단을 내리려고 한다. 이토 카즈오는, “다시 살기를 기약할 수 없다는 비장한 결의 하에 이뤄진 것으로, 작가 생명이라고 할 수 있는 소설의 저작권을, 신조사에 양도한 것도 그 증거이다”⁵⁾고 주장한다. 집필 당시에는 『신생』에서도 볼 수 있듯이 『버찌가 익을 무렵』은 작자가 마지막으로 붓을 잡고 있는 듯 유서 같은 마음가짐으로 쓴 것이다. 그러나 초고와 개고 사이에 1년 정도가 경과해서 프랑스 시절에 쓴 개고에는 당초 각오는 희미해지고, 게다가 신생 사건과 맞물려서 『버찌가 익을 무렵』 1장 시게코와의 스토리가 더해진 것이다. 이토가 말하기를 “개고 『버찌가 익을 무렵』의 제 1장에서 볼 수 있는 『묻어 버리고 싶은 과거』는 (중략) 이제 시게코와의 교섭을 가리키는 것뿐만이 아니라, 여기에는 『신생』의 세츠코와의 관계가 무겁게 덮쳐오고 있어, 시게코는 『신생』의 세츠코와 그 자체로 겹치는”⁶⁾ 것이다. 『버찌가 익을 무렵』의 발단은 『신생』의 세츠코와의 관계와 얽혀서, 이와 같이 작자의 성(性)과의 관계가 숙명적으로 억압해 오는 것이다.

5) 이토 카즈오(1983) 『벚꽃열매가 익을 무렵 논고』 유정당, pp.169~190

6) 동주5

시게코와 그와의 교제는 젊은 기독교도 사이에 행하여지는 청춘 남녀의 교제에 불과하다고 믿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그는 눈을 떴다.

이 “눈을 떴다”의 의미는 적어도 스테키치 자신을 돌아보고, 거기에는 “크리스트교도”의 이름 하에서는 미화할 수 없는 무엇인가가 있었던 것이다. 한편 “마치 마음의 벽화처럼 지나간 날의 과감함과 따분함을 절실히 알게 되지 않고는” 있을 수 없는 비애를 느끼는 것이다. 그의 “내부에 싹트기 시작하는 젊은 생명의 싹”을 염문이 돌게 되어 자각하고, 그리고 지금 스테키치는 “어느덧” “어른들이 모르는 길을 제멋대로 걷기 시작하고 있다”라고 말하며, 이에 대해서 “말로 표현하기 힘든 공포를 느꼈다”고도 말한다.

스테키치는 신체 내부로부터 변하기 시작하는 생명의 자각이라는 형태의 자연을 발견한다. 여기에서의 자연은 “떨시하며 후회하지 않을 수 없는” 것으로 느껴지고 있다. 이러한 자연의 혐오는, 스테키치에게 “우미한 정신생활을 보낸 사람들의 생애를 추모하는 마음”을 불러일으킨다. 이것은 자연의 지배에 대항하고, 자연을 초월하려는 것이나 다름없다. 육체적인 자연을 혐오하고, 정신에 의해서 이를 초월하려고 하는 경향은, 도손의 개신교 사상에 유래한 것이 분명하다.

여기에 “자연을 긍정 찬미하고 그대로인 자연인 생명을 넓혀 나가려고 하는 크리스트교적인 이상과 자연이기 때문에 악을 품은 존재를 뛰어 넘어야 하는 크리스트교적 이상이, 젊은 스테키치 — 도손 안에 함께 존재했다”고 이해할 수 있다. 스테키치는 이후 자신을 자각한 결과 “우울감”에 빠지며, 이 시기에 메이지 학원에서 하계 학교가 열리면서 크리스트교에 대한 새로운 자각에 눈뜨게 된다.

3. 스테키치와 크리스트교

제 2회 크리스트교 하계 학교에서는 오시카와 마사요시, 에비나 단죠, 우에 무라 마사히사, 나카지마 리키조, 렉스 데이비스, 위샤랜드 드라몬, 오오니시 하지메 등의 강연이 있었다. 도손은 이 하계 학교에서 오오니시의 강연을 듣고

있다. “그리스 도덕에서 기독교 도덕으로 들어가는 변천 — 좋은 제목이지 않은가”(3). 「기독교 신문」 메이지 23년 7월 18일호에 따르면, 오오니시의 강연은 9일, 11일, 14일에 걸쳐서 매일 오후 8시경부터 시작했다. 도손은 “그리스 도덕에서 기독교 도덕으로 들어가는 변천” 이라고 기술하고 「기독교 신문」에는 “그리스 도덕이 기독교 도덕으로 변천하는 과정”이라고 적고 있다.

오오니시는 강연 중에 그리스 도덕과 크리스트교 도덕의 차이를 설명하고, 그리스 도덕이 자연적, 이성적, 미술적, 개인적, 낙천적, 귀족적인 데에 비해, 크리스트교 도덕은 초자연적이고, 또 이것에 따르는 신학적, 박애적, 초세적, 평민적인점이 있다고 말한다. 그리고 초자연적인 크리스트교 사상은 “현대 일본에서는 일종의 수요이고, 그 사상이 더욱 더 활력을 갖고 활약하기를 희망”⁷⁾ 한다고 했다.

교회 의식 같은 예배 등에 참석은 했지만, 거기에 안식이 없는 공허함을 느끼고 있는 스테키치는, 하계 학교에서의 체험은 그에게 자극을 준 것이다. 그에게 엄습해 오는 우울함은 단순히 육에서 오는 것이 아니고 자연에 존재하는 속박이라고 인식된다. 한편 크리스트교는 자신을 자연의 속박에서 구원할 수 있는 것으로서 자각된다. 그는 하계 학교에서의 체험을 경험함으로써 “실수로 나는 세례 따위를 받았다. 만약 진실로 세례를 받으려 한다면 지금부터다” 라고 중얼거린다. 그는 자신을 둘러싸고 있는 자연에 대해서 “과감하게 피하려는 듯한”(4)태도에서 일체의 것을 버리고 “자신이 가야 할 길을 찾아라”고 깨닫는다.

이 때 다나베의 집 주변에는 절실하게 예수를 믿는 사람과 아멘을 싫어하는 사람들이 공존한다. 크리스트교 신자로서 다나베의 집에 출입하는 마세와 전도자를 지망하고 다나베에게 신세를 지고 있던 다마키 씨 부부, 그들은 같은 침례교파이다. 마세는 “10년을 하루와 같은 신앙으로 살아” 와서, 신을 소원하면서 거기에 신앙과 생활을 추구하는 소박하고 경건한 사람이고, 다마키 부부는 열렬한 신자이면서도 그들의 옛날 오래 된 무사 집안의 잔영은 크리스트교 신앙과는 모순된 듯한 권위와 섞여서, 다나베의 집에 긴장감을 불러 일으킨다. “기독교만큼은 제대로 놓치지 않을 작정이었는데……”라고 조심스럽게 말하는 마세의 신앙 고백은, 교회의 분위기에 흥미를 잃은 스테키치에도 정겹게 느끼

7) 『오오니시 하지메전집』 제5권 「그리스 도덕이 크리스트교 도덕으로 변천하는 과정」

게 하는 것이 있었다. 실제로 도손이 유년 시절부터 보낸 요시다 집은 번두리 같으면서 종교적인 분위기는 없었다. 그들은 아멘을 싫어하는 사람들이었다. 도손의 메이지 학원 시절의 말기에 요시무라 집에 동거하고 있던 주인 다다미치의 여동생, 가세 이쿠 부부는 크리스트교 신자이며, 도손은 그들과 동거 전부터 그 신앙 고백을 들은 적도 있는 것 같다. “다마키 씨의 이모는 언젠가는 여자 전도사로 뜻을 두고 있는 사람이었다. 다나베에게 신세를 지기 전에 곧잘 츠키치 방향에서 왔고, 담담한 변설로 복음의 고귀함을 설교하는 것을 스테키치도 언뜻 들은 적이 있다”(4). 그러나 다마키 씨의 신앙에서는 “가난한 약자 편이 되어 줄 기독교 교회에 가서 영혼을 맡기는 것 외에 방법이 없는, 이제 더 이상 이도 저도 되지 않는, 극도의 과로와 권태로 떨고 있던” 인간으로서 느끼고, 같은 크리스트교 신자로서 연민을 갖게 된다. 그리하여 이 “연민”이란 마음에서 스테키치는 기도회 멤버가 되고, 거기서 크리스트교 신자를 발견하고, 저녁 무렵 조용한 때에 그저 홀로 쓸쓸히 기도하는 기분에 잠기기도 한다. 기도는 하나님과 자신과의 대화 및 영적 교제이다.

기도는 영원을 사모하는 자신의 마음이 들어가야 한다. 왜냐하면 인간이 궁극적으로 추구하는 가치는 자신과 하나님(주) 나라와의 관계 위에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이다. 기도 내용은 주로 은혜에 대한 찬미, 죄에 대한 회개와 고백, 자신이 소망하는 바람과 탄원 등이다. 기도하는 사람은 그 기도가 반드시 이루어지기를 믿고 기도해야 한다. 스테키치에게 기도는 종교 본연의 기도 개념과는 달리, 문학적이라고도 할 만큼 외로운 마음으로 기도하고 있었다. 보통 크리스트교 신자는 기도를 통해서 기쁨을 얻는다. 기도란 있는 그대로의 신의 뜻이 넘쳐 나오는 것이다. 마음 속에서 끊임없는 감사의 정이 있어서, 그것이 말로 표현되는 것이다. 기도를 통해서 고뇌며 외로운 마음으로부터 해방되어 기쁨을 얻는다. 그러나 스테키치는 기도의 쓸쓸한 기분에 잠길 뿐이었다. 기시모토에게 크리스트교란 기쁨을 주는 신앙이 아니라 쓸쓸한 기분을 주는 신앙이다. 결국 기시모토의 신앙은 “거의 정신없이 세례를 받은” 신앙이었던 것이다.

아멘을 싫어하는 다나베 남편의 변명의 말에는 “스테키치가 가는 곳 따위는 선생님이 모두 아메리카인입니다. 아침부터 밤까지 영어라고 합니다” 라며 “언젠가는 자신의 한 쪽 팔, 사업의 상속자로” 하고 싶다고 생각하는 소망을 담은 장래의 계획을 읽을 수가 있다. 이렇게 메이지 20년대 크리스트교(개신교)는 입신출세, 도덕 논리로써 일본인에게 받아들여지고 있다.

이것은 일본에 크리스트교를 도입하기에 크게 영향력이 있었던 우치무라 간조가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는 것으로도 알 수 있다.

성서는 도덕의 서적이 아닙니다. 성서는 인간이 도덕의 본원에 이르는 길을 나타내는 서적입니다.(우치무라 간조 『일일 일생』)

그러나 스테키치에게 크리스트교는 도덕의 근원인 신에 접근하는 것이 아니라, 도덕 논리로서의 신을 인정한 것이다. 그것은 점차 종교와 문학의 상극이라는 문제로써 나타난다.

스테키치는 종교와 문학이 서로 용납되지 않는 것이라고 고뇌한다. 도손이 후일 「메이지 학원의 학창」에서 “엄숙한 청교도적인 종교 사상과 분방 불기한 예술 사상이 어린 머릿속에 싸우고 있던 시기”도 있었다고 술회했던 것처럼, 기시모토 안에 크리스트교를 둘러싸고 치열한 회의가 일어난다. 장래에 대해 알 수 없는 불안, 크리스트교에 대한 불확신, 아름다운 것에 대한 동경 등, 평범한 청년이라면 누구나 갖는 감성이다. 이 회의 안에 있으면서 “주여! 이 작은 저를 이끄소서”라고 기도한다. 학교를 졸업한 기시모토는 다카와 거리에 있는 교회당으로 부터도, 아사미 선생님의 옛 집으로 부터도, 그 외 여러 추억이 남은 학교로 부터 멀어져 갔다. 그의 <이세사키집> 생활은 잠시 영육 간의 갈등에서 떠난다.

요시모토 (이와모토 요시하루)의 배려로 번역 일에 종사한 기시모토는 「여학잡지」 기고나 메이지 여학교의 취임으로 인해 다시 교회나 크리스트교인과의 교제가 시작된다. 한편, 「여학잡지」에 「엄세 시인과 여성」을 발표한 아오키와의 친분은, 스테키치에게 육체의 몸에서 떨리는 경련 같은 감동을 준다. 그러나 기시모토의 아오키에 향한 마음은, 둘 다 크리스트교 신자이면서 도쿄쿠가 가지고 있는 프랜드 교회의 사상에 있던 것이 아니고, 아오키의 인간적 고귀와 순수한 자기 확인의 자세에 끌린 것이다.

메이지 여학교 교사가 되고나서 기시모토는 자신이 소속된 교회를 다카와에서 고지마치로 옮긴다. 고지마치 교회란 우에무라 마사히사 목사의 고지마치 이치반쵸 교회이고, 그 시기는 메이지 25년 5월경이다.

우에무라 마사히사는 메이지 18년부터 20년에 걸쳐서 구약성서의 일본어 번역의 일원으로 종사하고, 앞에서도 말한 대로 메이지 23년 7월 제 2회 크리스

트교 하게 학교의 강사이기도 했다. 메이지 여학교 설립 때는 발기인으로 참여하고 메이지 학원 설립에도 참여하며, 신학부 교수가 된다. 『과리의 비유』 등이 「도쿄 매주신보」 25호(메이지 27년 11월)에 실리고, “우에무라 마사히사의 『대사원과 과리』와 관련된 것은 아오요시 씨의 『우에무라 마사히사 전』에서 추정할 수 있다”⁸⁾ 고 사사부치가 지적하고 있다.

기시모토에게 영혼과 육체의 이원적 분열이 일어난다. 신을 받아들이지 않는 육신의 고통의 표출이다. 스테키치의 젊은 신앙은 “시와 종교의 유치한 마음이 혼합된 것으로, 어른의 투철한 신앙의 경지와는 먼 것”(11)이었던 것이다. 그에게 그리스도는 너무나도 시적인 인격의 환영으로, 그것이 영육 갈등의 원인이기도 하였다. 이토는 이 영육간의 갈등을 “성숙기를 맞이한 청년이 갖는 육체적 욕심의 고통에 가까운 것이다. 거기에는 크리스트교 논리의 제약이 인정되는”⁹⁾ 것이라고 말한다.

삼위일체라는 것은, 주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한 성서에서 증명되는, 신은 유일한 신이고 아버지·자식·정령이라는 삼위를 모두 겸비하는 신이라고 여기는 것이 크리스트교 교리이다. 그러나 기시모토의 그리스도관은 그리스도를 전지전능하신 하느님이라고 인식하고는 있지만, 그의 선입견에서 품고 있던 유치한 지식으로 부터의 것으로, 실제로 그가 체현하고, 그리스도 인격에 부합하는 것은 아니다. 보이지 않는 신이 아니라 육체가 보이는 신이다. 그것은 사사부치가 말하는 “신앙의 체험에서 나온다고 하기 보다는 시적 환상에 가까운”¹⁰⁾ 것이다. 스테키치의 신앙은 “시와 종교의 유치한 생각이 혼합된 듯 한 것”이다.

기시모토에게 아침저녁 기분전환으로 흥얼거리던 성경 찬송가 대신에 가련한 오페라 노래 등이 떠올랐을 무렵, 엄숙한 여호와 신 대신에 자신의 학생 모습이 눈앞에 나타나기 시작한다. 기시모토는 “주여! 여기에 당신의 작은 내가 있습니다”(11) 라고 기도하는 대신에 가르코의 이름을 부르고 있다. 이러한 자신의 내부에 눈을 뜨는 것 같은 기이한 열정에 기시모토는 형언하기 어려운 공포조차 느낀다.

바로 “간절한 사랑을 위해서는 그의 교회마저 버리고 나갈 각오가 되었다”는 것이다. 짝사랑의 결과, 스테키치의 그리스도는 그에게서 어쩔 수 없이 떠

8) 사사부치 유이치(1971) 「島崎藤村과 프로테스탄트」 『島崎藤村』 유정당, pp.310~320

9) 동주5

10) 동주7

나가 버리게 된다. 그것은 이른바 이신 혹은 배신이라고도 한다. 그는 간사이 여행을 결의하면서 오카미 형제와 그 누나 료코와 가마쿠라 별장에서 조용한 기도회를 갖는다. “기시모토 군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라고 말을 꺼내며 “기요노스케도, 료코도, 스테키치도 모두 거기에” 라고 무릎을 꿇고, 오카미는 “뜨거운 이별 기도를 신에게 바친” 것이다. 결국 스테키치의 신앙은 신앙의 체험에서 나온다고 하기 보다는 시적 환상에 가까운 것이라 할 수 있다.

4. 리모주 감회

『버찌가 익을 무렵』 중에서 신앙을 언급한 장은 1장, 3장, 4장, 5장, 7장, 11장, 12장이다. 이 중에서 4장은 주인공 기시모토의 신앙 고백의 장으로 간주해야 할 것이다.

『버찌가 익을 무렵』의 4장과 5장은 프랑스의 리모주에서 쓰여진 것이다. <신생사건> 속에서 속죄 여행으로 프랑스를 선택한 도손은, 제 1차 세계 대전이라는 전란에 휘말리는 혼란한 상황 속에서, 이 리모주로 이사하는 것은 “나에게는 조용하고 공기가 좋은 곳에 가서 일을 하고 싶은 마음이 있고, 미리 생각하고 있던 프랑스 시골을 처음 보는 즐거움”을 동반한 창작의 장소로써 마침 안성맞춤인 곳이다. 제 4장은 신앙 생활자로서 가장 경건한 신을 구하는 신앙 고백과 기도가 그려지고 있다. <신생사건> 이후 프랑스에서의 경험이 도손에게 <신생> 동기를 부여한 것은 말할 필요도 없다. 리모주에서 생활은 도손에게 종교적인 감정을 불러일으킨다. 그는 가톨릭의 미적 세계에 마음을 빼앗김과 동시에 가톨릭 신앙 자체에 관심을 갖게 된다.

이들의 리모주의 종교적인 것과의 관계는 『버찌가 익을 무렵』의 제 4장에 그려진 스테키치의 신앙 고백과 기도와 관련된 것이 있다. 프로테스탄트 크리스티교로부터 떨어진 도손에게 가톨릭시즘의 나라 프랑스는 바로 그의 마음을 살리는 재생의 장소이었다. 프랑스에서의 생활 속에서 리모주에는 겨우 3개월 체류하고 있었지만, 도손이 가장 순수한 심정으로 신에 접근한 것은 리모주 생활이었다. 벤느 강에 가까운 시골 2층에서 쓴 『버찌가 익을 무렵』의 제 4장이 다른 장에 비하면 신앙 고백의 중요성, 기도 문제 등 도손의 종교에 대한 진실성, 성실성이 한층 더 그려진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된다.

5. 나가며

『버찌가 익을 무렵』은 도손 작품 계열뿐만 아니라 일본 근대 문학에서도 독특한 내용을 가지고 있는, 전형적인 크리스티교 문학이다. 그리스도인이었던 작가 도손의 청춘 궤적은, 세례로 시작되고 교회를 떠날 때까지 크리스티교와의 깊은 관련 속에 이뤄지기 때문이다. 청춘 시절 도손의 자기 형성 중에는, 크리스티교 사상이 크게 차지하고 있다. 도손의 내부에는 심각한 영육의 싸움이 있고, 영혼을 양모하면서, 한편으로는 육체에 대한 긍정적인 면이 보인다. 도손문학은 그 출발점에서 이것들을 배태하고 있다. 그리고 그 영육간의 갈등을 그린 것이 『버찌가 익을 무렵』이다. 『버찌가 익을 무렵』은 영육간의 싸움이고, 문학자 또는 인간으로서의 도손의 삶의 방식을 제시하고 있다. 『버찌가 익을 무렵』의 전장 1장에서 5장은 파리의 객사에서 혹은 리모주의 시골에서 다시 쓰여 졌고, 후장 6장 이후는 <신생사건>의 재연 시기에 쓰여 졌다. 프랑스에서 종교적인 가톨릭 세계의 체험, 즉 아베라르와 에로이즈 세계에 대한 이해는, 도손의 영육간의 갈등에 어느 정도 마음의 정화를 준다. 이 체험이 도손에게 자신의 동화 같은, 20년 전의 인생을 돌아볼 여유를 갖게 만든다. 이 종교적 체험 등을 배경으로 한 『버찌가 익을 무렵』은 동화의 정조와 젊은 날의 행복을 상상할 수 있는 따뜻함을 느끼게 한다.

『버찌가 익을 무렵』의 대미에는 “나는 이제 막 발을 내딛었다.” 라고 말한다. 그것은 도손의 다른 자전 소설과는 다른 밝은 따스함을 느끼게 한다. 이 따스함도 프랑스의 리모주에서의 체험이 그 배경에 있었다고 생각한다.

[부기]

시마자키 도손 작품의 모든 인용은, 筑摩書房판 『도손전집』에 따른 것이며, 한글번역은 논자가 행함.

【참고문헌】

- 亀井勝一郎(1953) 『島崎藤村論』 신조사, p.110
 和田謹吾(1966) 『島崎藤村』 명치서점, pp.73~74

- 세누마시게키(1959) 『평전島崎藤村』 실업지일본사, pp.224~228
笹淵友一(1959) 「『文学界』とその時代」 明治書院, pp.310~320
吉田精一(1960) 『吉田精一著作集』 六 桜楓社, pp.250~280
———(1983) 『島崎藤村』 Ⅱ 『日本文学研究資料叢書』 有精堂, pp.16~91
———(1966) 「解釋と鑑賞」 別冊 『現代のエスプリ島崎藤村』, pp.57~88
伊東一夫(1969) 『島崎藤村研究—近代文学研究方法の諸問題—』 명치서원, pp.815~820
———(1971) 「国文学解釋と教材の研究 <島崎藤村と日本の近代>」, pp.10~50
———(1974) 「解釋 <特集・島崎藤村研究>」, pp. 80~99
———(1990) 「解釋と鑑賞 <島崎藤村の再検討>」, pp.180~195
임성규(1996) 『시마자키도손연구』, 관악사, pp.2~30
『오오니시 하지메전집』 제5권 「그리스 도덕이 크리스티교 도덕으로 변천하는 과정」

논문 투고 일자 : 2017. 08. 31. 논문 심사 일자 : 2017. 10. 26. 게재 확정 일자 : 2017. 10. 27.
--

＜要旨＞

『桜の実の熟する時』について的小論

林盛奎

『桜の実の熟する時』は大正八年、暗い曲折の中で書かれた明治二十年代への回想である。『桜の実の熟する時』は性が芽生える時期の、若いがゆえに苦悩する青年達を「若い日の幸福のしるし」のシンボルとして取材し、将来のことにえも言われぬ恐怖を感じながら、誰もが待っている新しい世界へ、その遠くて近いような翹望を持って踏み出そうとする明るい群像をありありと描いている。しかも『春』には見られない明るさと、青春をすでに乗り越えた藤村が青春の本質を客観的に冷静に見つめている姿がうかがえる。青年たちの性の芽生えと恋愛の自覚、将来のことに對する不安と周囲の無理解、キリスト教の信仰の受容と離脱、友情などすべての青年たちが気にかける問題を藤村自身のそれに照らし合わせた自伝小説であり、教養小説と見ることもできる。リモージュでの宗教的体験は『桜の実の熟する時』のキリスト教の信仰と対照されるであろう。これら、フランスの旅での体験を考慮した上で『桜の実の熟する時』における「青春」と「キリスト教」というものを考えてみたい。

A way to “The Time When Cherries Are Ripening”

Im, Sung-Gyu

By the Time of Cherries' Getting Ripe is a novel of reminiscences describing Meiji 20 years in the vicissitudes of dark life in the eighth year of Taisho. According to Dohson, this novel explores the agonizing youths' sexual awakening period as symbolic evidence of happiness. It also obviously represents many optimistic youths who are planning to go toward the new world far and near, which everyone expects, shaking with fright about the unspeakable future. The youths' sexual awakening and awareness of love; the anxiety of the future and misunderstandings surrounding it; the reception and denial of Christianity; and friendship along with other issues of youth are clearly expressed throughout this novel in the light of Dohson himself. Therefore, this novel can be considered both an autobiographical and educational novel.